

보도시점 2023. 4. 7.(금) 08:30 배포 2023. 4. 7.(금) 08:30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4.7(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을 논의하였다.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044-215-2811)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발표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천만불 적자¹⁾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역수지 적자($\Delta 125 \rightarrow \Delta 53$ 억불)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되었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폭이 제약된 모습입니다.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의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불대 흑자가 예상됩니다.

한편, 그간 코로나 요인으로 인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는
최근 들어 운송 및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악화되며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 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1) 1→2월 경상수지(억불): (경상) $\Delta 42 \rightarrow \Delta 5$ / (상품) $\Delta 73 \rightarrow \Delta 13$ (서비스) $\Delta 33 \rightarrow \Delta 20$ (소득) $+64 \rightarrow +28$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및 향후 실행계획을 점검·논의합니다.

4월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등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본격 재개되었습니다.

‘축제찾아 K-여행 페스타’(관공공사 웹사이트, 4.10일 오픈)를 통해
권역별 지역축제 및 이벤트를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됩니다.

다음주 ‘내나라 여행박람회(4.13~4.16)’를 시작으로
‘서울 페스타’(4.30~5.7),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5.1~31)’,
‘K-pop 드림콘서트(5.27)’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5월말 이후 국내여행을 갈 경우,
일반국민(134만명)은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경비를 할인 받고,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최대 19만명) 등은
휴가비 최대 20만원을 지원(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받습니다.

4월중 고속철도 SRT 이용시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5월에는 KTX(4인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폭이 확대(30%→50%) 되며,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봄꽃 명소 관광열차(4월), 순천정원박람회(4~10월), 새만금 잼버리(8월) 등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경우,
4.1일부터 22개국²⁾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가 일시 면제되었고,

2) (아시아, 5개국·지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 2개국)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13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5월중 코로나로 중지된 3종 환승무비자제도가 재개³⁾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환승관광이 편리해 집니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대상 항공권 할인(4월~),
중국·일본·동남아 국제항공편 증편(4월~) 및 지방국제공항(김해·대구·
무안·청주·양양) 부정기편에 대한 착륙료도 면제(5~11월)⁴⁾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위해
메가 이벤트 개최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food Day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축산대전(5.1~2) 등 릴레이 K-food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명동페스티벌(4.30~5.7) 등 K-패션 할인행사도 실시합니다.

여행사 등 초청 팸투어(중·일, 4~6월), 'K-관광 로드쇼(4월~)',
K-프렌즈 등 관광공사 서포터즈를 활용한 SNS 홍보 등
Team-K(관광·공항공사 등) 중심으로 관광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역·테마별(마을체험·골목맛집 등) 스토리텔링 관광컨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관광정보플랫폼(VisitKorea 등)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여행상품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기업 등과 함께
금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상수지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3) ①(제3국 통과여객 무비자 입국허가)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시 최대 30일 체류, 지역제한 無
②(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비자 입국) ① 대상자(제3국 통과여객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자) 外 최대 3일간 수도권 체류 가능
③(제주단체 환승객 무비자 입국허가)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 입국 → 제주공항 환승시 최대 5일간(양양0일) 각 공항 권역+수도권 체류 가능
→ 제주단체 환승객 무비자 입국허가의 경우 중국의 단체관광 허용국가에 포함 필요

4) 외국인 탑승비율이 최대 50% 이상인 경우 각 공항별로 항공사당 최대 16편까지 허용('23.4.2일 국토부 보도자료)